

수학가형 기하 빠지고 복잡한 전형명칭 통일

2021학년도 수능계획 발표
 2020년 11월 19일 시행
 한국사·영어 등급만 기재
 검정고시 차별 금지 명문화

이상 실시한다. 정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2020년 12월 26~30일 사이 대학별로 3일 이상씩이다.
 ◇복잡한 대입전형 명칭 통일= 대학별로 제각각이라 특성을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웠던 대입전형 명칭 표기가 간단해진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했던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도 표준화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이날 발표했다.
 대교협은 우선 대학이 전형명칭을 자율

적으로 정하되 수험생·학부모가 이해하기 쉽도록 유형을 통일해 표기하도록 했다.
 대입전형은 크게 학생부종합·학생부교과·수능·실기·논술 위주 전형으로 나뉜다. 대개 '학생부종합(○○인재전형)', '실기(○○전형)'처럼 주요 전형 요소를 먼저 표기하고 세부 전형명을 뒤에 쓰는 방식으로 명칭을 정하도록 했다.
 대학은 전형을 설계하거나 진행할 때 출신고교, 검정고시 출신 여부 등 '학력(學歷)'에 따른 차별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대교협 관계자는 "기준에도 전형에서 학력을

차별하지 않도록 했는데 이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전했다.
 각 대학은 정원 내 또는 정원 외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고른기회 특별전형'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대교협은 그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했던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 자격도 표준화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누리집(www.kcue.or.kr)과 대입정보포털 사이트 '어디가'(www.adiga.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영호 기자 khk@kwangju.co.kr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안내 및 대비전략 설명회가 29일 오후 광주시 북구 광주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설명회에 참석한 중등 교사와 학부모들이 강연자의 설명을 주의깊게 듣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한빛 4호기 격납건물 구멍 14곳 추가 발견

지난해 11월 8곳 이어
 3호기도 내부철판 점검

공극은 22곳에 이른다. 원전 측은 철판을 타격해 소리로 '의심 부위'를 먼저 확인하고 이 부위를 차례로 정밀 점검하고 있다.
 현재까지 점검된 철판이 절반 정도라는 점에서, 나머지 철판을 추가 조사하면 공극이 더 나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원전 측은 지난 5월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가동을 멈춘 한빛 3호기 내부철판도 점검할 계획이다. 4호기와 같은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3호기에서도 공극 등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당초 한빛 3호기는 8월 중 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현재 한빛 6기 가운데 4기(1~4호기)가 정비-점검을 위해 가동을 멈추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작년비 2.15배 증가

8명 사망...75% 어패류 감염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9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비브리오패혈증 신고환자 중 75.8%가 어패류를 먹고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13명)보다 2.15배나 늘었다.
 올해 비브리오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신고된 환자는 8명이며, 이 중에서 확진 환자는 3명이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
 비브리오패혈증 사망 확진 환자 3명을 대상으로 역학 조사한 결과, 간 질환, 알코올중독, 당뇨 등 기저질환을 가진 비브리

오패혈증 고위험군이었다.
 비브리오패혈증 환자는 6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하는데, 주로 8~9월에 집중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려면 특히 어패류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비브리오패혈증 신고환자 중 75.8%가 어패류를 먹고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어패류를 조리할 때 해수를 사용하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고,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 등은 반드시 소독한 뒤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3 달뜨기 21:19
 해질 19:03 달지기 09:13

폭염 식하는 단비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다.

광주	흐리고비	25/30	보성	흐리고비	24/28
목포	흐리고비	25/29	순천	흐리고비	25/29
여수	흐리고비	26/29	영광	흐리고비	25/29
나주	흐리고비	24/29	진도	흐리고비	25/29
완도	흐리고비	25/30	전주	흐리고비	24/28
구례	흐리고비	23/29	군산	흐리고비	24/27
강진	흐리고비	24/29	남원	흐리고비	23/27
해남	흐리고비	24/29	흑산도	흐리고비	24/29
장성	흐리고비	24/28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남서	0.5~1.0	남~남서	0.5~1.0
남해 앞바다	남~남서	1.0~1.5	남~남서	1.0~1.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남~남서	0.5~1.0	남~남서	0.5~1.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남~남서	1.0~1.5	남서~서	1.0~1.5

◇생황지수

위험	보통	좋음
식중독	지외선	미세먼지

◇주간 날씨

	31(금)	9/1(토)	2(일)	3(월)	4(화)	5(수)	6(목)
구름	☁	☁	☀	☀	☀	☀	☀
시간	24/29	24/30	23/32	24/31	24/31	23/31	22/31

"놀이공원, 장애인에 성인 보호자 동반 요구는 차별"

차별금지추진연대 인권위 진정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각 다른 장애를 가진 이들이 동일한 사유로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없었다"면서 "놀이공원 이용을 거절한 이유가 명백한 차별행위이기 때문에 시정을 요구하는 뜻을 담아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 따르면 진정인인 청각장애인 배모씨와 이모씨는 비장애인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애인 우선 탑승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뇌병변장애가 있는 전모씨는 아이들도 이용하는 놀이기구에서 역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용을 제한 당했다. 발달장애를 가진 이모씨도 키가 180cm지만 130cm만 되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를 같은 이유로 타지 못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관계자는 "놀이공원은 별다른 이유와 설명 없이 장애인에게 비장애인 보호자를 동행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기자 kimyh@

목포대 총장 재선거 박민서 교수 1위...54% 득표

목포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재선거에서 박민서(사진) 교수가 1위로 선출됐다. 29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선거에서 박 교수는 181,588표(54.4%)를 얻어 152,122표(45.6%)를 얻은 전호문 교수를 눌렀다.
 4명이 후보로 등록한 1차 투표에서도 두 교수는 각각 1, 2위를 차지했지만,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 끝에

순위가 확정됐다. 선관위는 최종 1, 2위 후보자를 목포대 총장 추천 임용위원회에 통보했다.
 투표 참여비율과 구성원별 인원수에 따라 선거권자 1명의 표 가치가 교원 1표, 직원 0.2273표, 학생 0.0819표로 환산됐다. /박정욱 기자 jwpark@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無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파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8-3(4층)
 ☎(062)412-2800